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김영혜¹ · 김경원² · 강미옥³ · 김남희⁴

¹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³울산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⁴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Adolescents

Kim, Young Hae¹ · Kim, Kyung Won² · Kang, Mi Ok³ · Kim, Nam Hee⁴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²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gue Hanny University, Daegu

³Education Supervisor,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lsan

⁴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smoking experiences in high school girls, and to define essential structures of the experience. **Method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Study participants were 8 high school girls who had experience with smoking. The method proposed by Giorgi (1985) was used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Results:** Themes which emerged from the data were: 'Beginning to smoke affected by surroundings', 'Self intention to begin smoking', 'Stimulated smoking drive (appetite)', 'Giving emotional comfort', 'Mood of overlooking teenagers' smoking', 'Smoking dead zone', 'Knowing that smoking is not suitable', 'Habitual smoking', 'Prejudice against women smoking', and 'Admitting that women smoke'. **Conclusion:** The findings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smoking experience by high school girls and indicate that in order to develop the most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to help female adolescents stop smoking,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Smoking, Adolescent, Qualitative research

서론

연구의 필요성

2007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을 중 여학생 흡연율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중2 여학생의 2006년도 흡연율은 6.4%로 성인 여성의 흡연율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여학생을 위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여학생의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과 2세의 임신과 출산을 책임질 여성이라는 점이다.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될 경우 그 손상 정도는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다. 니코틴에 노출된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많은 니코틴 수용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한다(Woolf, 1997). 또한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유발요인으로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따라 그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였다면 흡연기간도 길

주요어 : 흡연, 청소년, 질적 연구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2 years).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Nam Hee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e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Tel: 82-51-999-6237 Fax: 82-51-999-5176 E-mail: joongsowon123@hanmail.net

투고일: 2009년 7월 31일 1차수정: 2009년 10월 6일 2차수정: 2009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1일

어지고 흡연량도 많아지게 되므로 폐암의 발생률과 사망률도 높아지게 된다(Wiencke & Kelsey, 2002; Yi, Jeon, Son, & So, 2007). 실제 20세 미만 흡연청소년 폐암의 위험도는 성인 남성의 2배이며 15세 미만 흡연청소년의 위험도는 25세 이상 성인의 3.5배라고 한다(Hegmann et al., 1993). 더욱이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타인에 대한 모방으로 시도되는 각종 행위들은 습관화가 되기 쉬우며 청·장년기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므로(Yang, Kim, Kim, Choi, & Koh, 2005) 흡연과 같이 건강에 위대한 행위들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하는 여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기대감과 동기 수준은 남학생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십대들은 날씬해지려는 욕망과 몸매에 대한 불안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된다(Wiseman, Turco, Sunday, & Halmi, 1998). 그녀들은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된 것 같고, 독립성과 성적인 매력, 사회성 면에서 자기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흡연하는 여학생의 52.9%는 금연을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고 한다(French & Perry, 1996). 또한 젊은 여성들의 흡연은 자아존중감과 불안, 그리고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Kim, Kim, Kim, & Baik, 2001; Williams & Adams-Campbell, 2000),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학생보다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자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nch & Perry, 1996).

그러나 여학생의 흡연이 임신과 출산 시까지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흡연은 여성의 수정능력을 감소시켜 불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유산과 사산은 물론 신생아 돌연사와 임신합병증까지 야기한다. 출산 시에도 저체중아를 낳거나 고위험 신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즙에 함유된 니코틴은 모유의 양을 감소시켜 신생아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Jones, Riley, & Dwyer, 1999; Milberger, 1998).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중재는 금연보다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을 위한 예방교육에는 다양한 흡연의 원인에 역점을 두어 정신·사회적인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과 흡연이 모성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 행위는 흡연 시도단계를 거쳐 규칙적 흡연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흡연 시작 전 또는 습관적인 흡연자가 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hoi, 2000). 따라서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내포된 흡연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여학생의 경우 다양한 흡연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규범상 노출을 꺼려하여 그들의 흡연 경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중재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양적 연구를 살펴보면 Cheong (2003)의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 및 흡연 예방교육 효과를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흡연율은 4.8%에서 2.6%로 교육 후 2.2%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1.6%에서 1.8%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Lee, Hwang, Park과 Lee (2005)가 흡연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서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가족기능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Han (2002)이 흡연 예방교육 적용 후 지식과 태도를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지식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태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경험의 이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질적 연구로는 Chung (2001)이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가 있으나 청소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흡연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흡연이 여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하는 청소년 여학생에서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소와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경험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여고생의 흡연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B시 소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흡연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로 해당 학교의 교사를 통하여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

목적, 면담방법 및 면담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결정한 이후 각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면담 시 녹음을 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서명을 받았다.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므로 연구자는 연구준비 단계에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로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 박사학위 논문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그리고 30년 이상을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간호철학, 간호과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2월에서 5월까지였고 처음 연구 참여자는 10명이었으나 2명은 면담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들이 흡연하고 있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힘들어하여 중도탈락하고 총 8명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의 심층면담은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다과를 참여자들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가질 때 연구 질문과 관련된 면담을 시작하였다. 내용에 따른 즉각적인 질문을 활용하면서 면담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시간은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업이 끝난 후로 정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 4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자는 면담을 하면서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연구자의 떠오르는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초기 면담내용을 보면서 부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제2, 제3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면담하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들이 생각나면 연구자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여 부가적인 전화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

지 않는 시점을 자료의 포화상태로 보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수집된 자료를 녹취하였는데 녹취된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Giorgi (1985)가 제시한 현상학적인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그 녹음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하였다.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청소년 여학생들의 흡연 경험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이 의미단위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분석 노트에 의미단위의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추출된 문장 혹은 구에서 찾아낸 의미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단위를 간호학 언어로 전환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였다.

넷째, 찾아낸 의미단위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주제범주를 찾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경험의 구성요소를 작성하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였다. 현상학적인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그리고 국문학 전공자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합성하고 흡연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내용이 그들의 본래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상학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titability), 그리고 확정성(confirmability)의 4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려 하였다. 우선 본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 처리하여 중립을 지키면서 면담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본 연구자의 지식적인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음은 물론 연구 참여자들과 질적 연구 전문가들로부터 본 연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주제, 주제군, 범주의 조직과정을 표로 보여주고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여 감사가능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상의 앞의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확정성을 획득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

의미의 구성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의 구성요소는 '흡연 동기', '흡연 충동', '사회의 무관심', '흡연의 영향', '여성 흡연에 대한 시각'으로 축약되었다(Table 1). 참여자들의 흡연 동기는 주변의 영향과 본인이 흡연을 하고 싶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흡연을 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요소였으며 주변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담배를 피워보았기 때문에 담배가 절실히 피우고 싶다는 흡연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경험했는데 이는 흡연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의 사각지대가 있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흡연의 영향은 참여자 스스로가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과 이제는 담배를 끊을 수 없이 흡연에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의 흡연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편견과 여성의 흡연을 인정하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을 경험하게 된다(Table 1).

흡연 동기

주변의 영향으로 흡연 시작

연구 참여자들이 담배를 접하게 된 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중학교 때부터였다. 동아리 선배가 반강제적으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런 선배의 태도에 눌려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주변에서 하나 둘씩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참여자들과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 그냥 따라 피우게 되었다. 주변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없을 때는 안 피웠는데 친구 따라 담배를 피우게 되면서는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한다.

친했던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나쁜 불량스런 학생이었거든요. 그 언니가 한 번 피워봐라 이랬어요. 약간 반협박식으로 그래서 피우기 시작했어요(참여자 5).
저는 처음에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친구가 피워서 저도 그냥 따라 피웠어요(참여자 2).

Table 1.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Adolescents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Motive of smoking	Smoking start effected by surroundings	Smoking by threatened enforcement Smoking with the friends
	Self intention to start smoking	Curiosity about smoking Chic appearance Diet effect Disobeying
Impulse of smoking	Stimulating smoking drive (appetite)	Smoking while drinking Mood of instigating smoking Eager to smoking
	Giving emotional comfort	Desperate need to smoke Not boring
Social indifference	Mood of overlooking teenagers' smoking	Adults' insignificant reaction Easy to buy cigarette School's generous treatment on the matter Powerless no-smoking education
	Smoking dead zone	Master how to smoke avoiding getting caught Possible to smoke concealing themselves
Influence of smoking	Knowing that smoking is not suitable	Signal of bad health Acknowledging bad point of smoking Cheating on parents Stained bad smell of cigarette
	Habitual smoking	Habitual smoking Can't control smoking Addicted to smoking
View on women smoking	Prejudice on women's smoking	Boyfriend's advice to stop smoking Smoking affects on pregnancy Image concern Generous treat only to the male students' smoking
	Admitting women smoking	Women smoking without restraint

흡연을 동경하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흡연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담배 피우는 모습은 멋있게 느껴졌고 자신들도 한 번 피워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외모에 한창 치중할 나이의 여고생인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살이 빠졌다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또한 담배를 끊었던 참여자들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화가 나면, 반항적으로 담배를 찾게 되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어릴 때 흡연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니까(중간생략).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고 담배를 피우면 살이 쏙 빠지게 되요. 그런 애들 많아요(참여자 4).

선생님이 열 받게 할 때는 애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다 피워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참여자 2).

흡연 충동

흡연 욕구를 자극함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로서 그들에게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권유가 아닌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 그곳에서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흡연에 대한 욕구는 간절하다고 한다. 또한 자신들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안의 벤치에서 골초인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담배에 대한 욕구를 꿀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나이 또래는 노래방이나 PC방 많이 가잖아요. PC방이나 노래방 가면 꼭 담배를 피워야 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참을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맛이 써요. 그럴 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딱 먹고 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참여자 1).

제 친구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썼거든요. 두 시간 쯤 계속 서 있었어요. 추운데 선생님들이 담배 다 피우시니까 속으로는 아 나도 빨리 내려가서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참여자 7).

마음의 위안을 줌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기분이 안 좋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와 가족들이 갈등이 있거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거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은 경우에는 담배에 대한 생각이 절실하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은 갈등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너그럽게 변한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흡연이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거나 무료함을 달랠 때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잔소리, 엄마 아빠 싸울 때, 싸우면요 기분도 나쁘고요 갑자기 짜증이 나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괜히 옆에서 돌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대 피우고 와서 엄마 아빠 말리고(중략)... 가족들이랑 싸웠다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선생님께 혼났다가 그럴 때요(참여자 2).

담배 피우면 하나도 안 심심해요. 누구 기다릴 때 담배 피우면 안 심심해요. 할 일 없다가 아 맞다 담배 있지 하면 그래 피우자 하고 피워요(참여자 5).

사회의 무관심

청소년 흡연을 묵인하는 분위기

참여자들은 자신들 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 가진 생활습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른들을 따라하려고 한다. 흡연도 어른들이 되기 위한 모방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른들은 참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꾀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정도만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도 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별만 줄 뿐이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흡연을 어른들이 말로만 승인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요즘은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봐도 아무 말도 안하거든요 그냥 꾀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고 가고... 어른들이 조그만 게 담배 피우나 이런 얘기 안해요(참여자 7).

선생님들도 화장실에 담배 냄새나고 담배 피우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확 지나가고 그래요.

안 해요 아무것도. 징계받는 중에 걸리면요 몇 대 후려맞고 끝나요(참여자 5).

흡연의 사각지대

참여자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흡연을 해왔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흡연 때문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였다. 더욱이 같이 흡연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와 어른들의 감시가 소홀한 곳과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과 PC방 그리고 커피숍 등을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으며 사복을 입었을 때는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옆에 보면 D동에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 골목길 같은 좁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완전 담배 피우라고 만들어 놓았어요(참여자 5).

징계 당하면서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할 때 청소만 시키고 거의 수업도 안 들어가고 선생님 관리도 안 받으니까 징계할 때 오히려 더 많이 피워요(참여자 6).

하루에 12-15개피 피워요. 골목길 같은 복도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 잘 안 오시거든요. 교실의 대형 TV 뒤에서도 피우고요. 이곳이 차라리 완전 사각지대예요. 도서관 앞 담 넘어가서도 피워요(참여자 8).

흡연의 영향

흡연이 안 맞음을 알게 됨

처음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 흡연을 지속하거나 끊었다 다시 피우게 되면서 자신의 몸에 안 맞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몸이 개운하지 않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자주 뱉어내면서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몸은 담배냄새로 찌들어서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흡사하고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비염에 치야까지 누렇게 치석이 생기다 보니 외관상으로도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몸에 밴 담배냄새 때문에 어머니께 꾸지람을 듣지만 참여자는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만 끊은 척하면서 어른들을 속이게 된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 하다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못하고 기관지가 너무 안

좋고 딱 느껴지거든요(참여자 1).

끊은 상태에서 애들이 딱 피우고 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담배냄새가 아니고 이게 무슨 할아버지 냄새, 약취도 아니고 오래된 냄새, 담배냄새는 담배냄새인데 담배냄새가 옷에 찌든 냄새,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를 피우는 애들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만나서 얘기하면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참여자 8).

엄마는 끊은 걸로 알고 있고... 어 알겠다 이렇게 하면 일단 들키는 것은 손냄새나 들어올 때 확 냄새나는 것 엄마들이 검사하잖아요. 너 담배 피웠어 안 피웠어 하면 손에서 냄새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제 진짜 안 피울게 끊을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냄새를 조심하는 거죠(참여자 7).

흡연에 길들여짐

참여자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술을 살 때는 꼭 담배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습관이 되다보니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린다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20살이 되면 끊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 잘 안 끊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속단을 한다. 흡연을 해도 임신해서 아이 잘 낳은 성공사례를 기대하면서 흡연을 한다고 한다.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이 금연하려고 금연초, 패치 등의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다 소용없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만든다.

술을 마시면 술맛이 쓰잖아요. 그럴 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습관이니까 이제 술을 딱 먹고 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참여자 2).

내 친구도 안 피우면 금단현상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불안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우는 거지 왕따 당할까봐 피우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기도 중독이 되었으니까요(참여자 4).

여성 흡연에 대한 시각

여성 흡연에 대한 편견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인 참여자들은 남학생과 다른 시각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들이 다

보는 버스 정류장이나 골목길에서 피우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흡연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숨어서 피워야 될 때가 많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주로 노래방이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커피숍에서도 피웠다고 한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는 남학생조차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고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옛날에 사귀었던 오빠가 저한테 끊어라 해서 3개월 끊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피우니까 3개월 동안 참다가 폭발되어서 그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다시 피웠어요(참여자 7).

남자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무슨 아이도 아니고 이려고 여자들이 담배 피운다 하면 여자가 무슨 담배고....(참여자 2)

남자애들은 마지막으로 빌면 좀 봐주고 앞으로 피우지마 하고 몇 대 때리고 마는데 여자애들은 징계 넘기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여성 흡연을 인정함

여성의 흡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내에서 담배 피우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눈에 익숙해져버렸고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가면서 담배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모두의 생활습관을 인정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같이 어울리는 남학생들로부터 스스럼없이 담배를 권유받는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대적으로 일고 있는 금연운동으로 성인들은 담배를 끊고 있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은 스스럼없이 니 없냐 그러면 주고 그래요(참여자 5).

내 친구는 남자애들 하고 놀면 남자애들이 그냥 자 이러면서 준대요. 저 안 피우는데 나 안 피우는데 이러면 여자애들 다 피우는데 넌 안 피운다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하고....(참여자 2).

요즘은 여자애들 안 피우는 애들 없잖아요. 안 피울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다 피워요. 한 반에 반 이상이 피우고 여학생이 더 많고 나가면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는 게 길에도 보여요(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는 실제로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이들에게 금연중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선, 참여자들의 흡연 동기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친구 등 주변의 권유 및 호기심과 멋스럽다는 느낌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여학생들은 처음에는 흡연을 원하지 않았으나 흡연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 여학생들로서 흡연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면서 피우는 모습이 반항적으로 멋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그들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 하며 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Chung, 2001) 주로 주변 환경과 가족, 그리고 동료 집단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Hayes와 Plowfield (2007)도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료의 압력이라고 하였으며, Falkin, Fryer과 Mahadeo (2007)도 그들이 금연을 시도할 경우에 우정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흡연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데(Park, 2005), Wiseman 등(1998)은 이들이 흡연을 통해 부모와 사회에 대한 반항과 도전, 호기심을 표현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점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멋스럽게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반항적으로 보이려고 담배를 시작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흡연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하며 그들 스스로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학교나 가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에 대한 충동은 연구 참여자들이 담배를 피울 줄 알기 때문에 갖게 되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담배가 더욱 생각나고, 침대들이 모이는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거나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면서 지나갈 때 그 연기만 맡아도 담배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어렵고 우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흡연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심심할 때는 담배가 외로움을 달래기에 좋은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Kam 등(2000)은 청소년의 흡연은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Chung (2001)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의 경우 몰래 흡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흡연으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입시에만 치중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없어(Erikson, 1980)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인 여학생들이 흡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가 청소년 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참여자는 처음에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갑을 사서 피웠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사복을 입고 나가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었으며 흡연하다가 들켜도 학교의 징계수위는 가벼웠고 금연교육은 항상 똑같아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어른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두 번 타이르 뿐, 청소년의 흡연을 알고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골목길이나 도서관 같이 선생님의 눈앞에서도 들켜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까지 파악할 정도의 요령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Chung, 2001) 그 후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흡연이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Cheong (2003)도 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Lee 등(2005)도 가족 갈등, 부모동거 여부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은 동료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금연을 할 것인지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에는 부모의 참여와 그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en 등(2005)도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부모일수록 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 아이들의 흡연율이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흡연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흡연을 하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나오게 되었으며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몸과 손에는 항상 담배에 찌든 냄새가 나지만 부모님께서는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속이게 되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몸으로 느끼지만 흡연이 만성화 되어버린 상태였다. 식후에는 소화가 잘 되라고, 화장실에 갈 때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치석이 생기고 비염이 생겨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금연초와 패치를 해보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흡연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족들에게 흡연사실을 숨기는데 이점에 대해 Chung (2001)은 청소년들도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임을 알고는 있지만 만성화가 되어버렸고 그들 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서 흡연사실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의 시기는 습관화와 만성화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속고 속이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학생들이고 이들의 흡연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이다. 참여자들이 느꼈던 사회적 시각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남학생들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여자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보기 안 좋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래에 결혼할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기를 갖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담배 피우다 걸린 남학생은 봐주는데 여학생은 벌을 주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여성의 흡연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여성의 흡연을 관조하는 시각이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여학생이 담배를 피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흡연에 대해 Baker, Robinson, William과 Baker (2000)는 남학생보다 사회적 이목에 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흡연을 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최근 남학생의 흡연을 증가는 높지 않지만 여학생의 흡연율은 꾸준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Kim & Suh, 2001)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을 위한 금연교육에는 남성에게만 관대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생각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지어 흡연이 남녀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흡연이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또한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학생들만의 고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이어트와 반

향적인 모습, 그리고 멋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한 흡연 동기와 우리사회의 규범이 여성의 흡연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아 여성의 흡연을 더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여학생의 금연교육에는 전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스로가 학교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흡연에 대한 남녀의 편견을 논하기보다는 흡연이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율을 저하시키며 태아의 발육부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Jones et al., 1999) 주지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하는 청소년 여학생에서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소와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여학생 8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Giorgi (1985)의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참여자로부터 17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으며 이 진술들을 29개의 주제(themes)로 묶고 다시 10개의 주제군(theme clusters)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연 동기', '흡연 충동', '사회의 무관심', '흡연의 영향', '여성 흡연에 대한 시각'의 5개의 구성요소로 축약하였다.

청소년 여학생들은 동료들에게 휩쓸리면서 혹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본인의 의도에서 흡연을 시작하였다. 술과 담배연기가 흡연 욕구를 갖게 하고 힘들 때나 무료할 때는 마음의 위안으로 흡연 충동을 느꼈다. 청소년 흡연을 묵인하는 분위기와 몰래 흡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흡연이 습관화되어 버렸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인정하는 분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또한 청소년 남학생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흡연 욕구를 느끼는 상황이 다양하고 그 흡연에 대한 기대도 크다. 흡연은 날씬함을 유지하게 하고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의 흡연은 사회의 모체가 되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며 장차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관심과 호기심을

대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부모와 학교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청소년 여학생만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심리,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학생의 다양한 흡연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흡연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단지 흡연 경험 유무만으로 선정하였으나 흡연의 기간에 따라 그 의미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는 대상자를 흡연 기간에 따라 나누어서 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Baker, M., Robinson, S., William, C., & Baker, D. J. (2000). Behavior, body composition and diet in adolescent girls. *Appetite, 35*, 161-170.
- Cheong, Y. S. (2003).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2002.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24*, 894-903.
- Choi, J. M. (2000). *Development of a predictive model of adolescent smo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ung, H. K. (2001).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xperienc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610-618.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A reissue).
- Falkin, G. P., Fryer, C. S., & Mahadeo, M. (2007). Smoking cessation and stress among teenag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 812-823.
- French, S. A., & Perry, C. L. (1996). Smoking among adolescent girls: Prevalence and eti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Women's Association, 51*, 25-28.
- Giorgi, A. (1985).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n, S. H. (2002). Effects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moking and the satisfaction of

- educ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 230-238.
- Hayes, E. R., & Plowfield, L. A. (2007). Smoking too young: Students' decisions about tobacco use.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32, 112-116.
- Hegmann, K. T., Fraser, A. M., Keaney, R. P., Moser, S. E., Nilasena, D. S., Sedlars, M., et al. (1993). The effect of age at smoking initiation on lung cancer risk. *Epidemiology*, 4, 444-448.
- Jones G., Riley, M., & Dwyer, T. (1999).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growth, and bone mass in prepubertal children. *Journal of Bone & Mineral Research*, 14, 146-151.
- Kam, S., Lee, K. H., Park, K. S., Kim, J. Y., Lee, Y. J., Kang, Y. S., et al. (2000). Smoking & Alcohol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 233-253.
- Kim, O. S., Kim, A. J., Kim, S. H., & Baik, S. H. (2001). The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y among unmarried woman smo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of Nursing*, 13, 509-516.
- Kim, S. K., & Suh, H. K. (2001). Smoking behavior and restrained eating among female adolescents. *Women Health*, 2, 51-73.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Smoking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s of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06-2007*. <http://www.cdc.go.kr>
- Lee, H. K., Hwang, H. S., Park, H. K., & Lee, J. K.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moking and family fun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26, 138-144.
- Milberger, S. (1998). Further evidence of an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Findings from a high-risk sample of sibling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52-358.
- Park, N. H.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and Promotion*, 22, 123-136.
- Wen, C. P., Tsai, S. P., Cheng, T. Y., Hsu, C. C., Chen, T., & Lin, H. S. (2005). Role of parents and peers in influencing the smo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in Taiwan. *Tobacco Control*, 14(Suppl 1), 10-15.
- Wiencke, J. K., & Kelsey, K. T. (2002). Teen smoking, field cancerization, and a "critical period" hypothesis for lung cancer susceptibility.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0, 555-558.
- Williams, C. D., & Adams-Campbell, L. L. (2000). Addictive behaviors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s residing in a public housing community. *Addictive Behavior*, 25, 45-56.
- Wiseman, C. V., Turco, R. M., Sunday, S. R., & Halmi, K. A. (1998). Smoking and body image concerns in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4, 429-433.
- Woolf, A. D. (1997). Smoking and nicotine addiction: A pediatric epidemic with sequelae in adulthood.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9, 470-477.
- Yang, S. N., Kim, T. Y., Kim, S. R., Choi, J. H., & Koh, H. J. (2005).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and adolescent's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26, 211-217.
- Yi, G. M., Jeon, K. J., Son, S. Y., & So, A. Y. (2007). The influence of depression,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female adolescents on smo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 442-451.